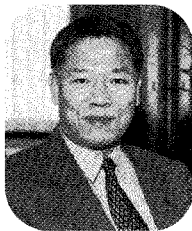


종합적인 돼지질병

방지대책 시급하다

최 근 구제역이라는 무서운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축산이 꼭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다. 물론 우리 축산의 미래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우리 축산의 전반에 걸친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축산의 중추적인 양돈산업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안전 축산물 생산의 걸림돌이었던 질병문제에 있어 종합적인 돼지질병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동안 우리 양돈인들이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구제역이라는 질병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듯 하다. 그러나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방역체계가 없었다면 이번의 구제역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양돈산업이 돼지콜레라와 구제역만을 근절시키면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즉, 악성 가축질병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래의 양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박 남 용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수

농장별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유입 근절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농장들이 차단방역에 얼마나 힘써왔는가 생각해 보자. 과거 양돈산업 초기에는 각 농장마다 출입구에 관계자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선명하게 쓰여있었으나 요사이 점점 퇴색된 것만은 사실이다. 질병유입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각각의 농장마다 질병의 오염원을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일이 중요한 바, 우선적으로 출입구의 소독시설을 갖추고 가능한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

입을 제한하고, 최근 정부에서 고시한 '가축수송 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을 준수하며, 출입 시 방역복 착용을 생활화 한다면 농장에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초장치가 될 것이다.

예방프로그램의 정착

우리 나라의 양돈규모를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소규모 농장으로서 대규모 농장에 비하여 양돈질병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의 적용이 미흡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질병에 국한되어 있어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질병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더라도 질병발생으로 인한 증체량 감소, 약품비 등의 손실은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 양돈 농가와 관련단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호흡기·소화기질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양돈농장의 대표적인 질병은 단연 호흡기질병과 소화기질병이 될 것이다. 호흡기질병의 발생원인을 그동안 병성감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본 결과 대부분 사양관리의 부실이 원인되고 있으며, 특히 농장주의 과육에 의한 밀사와 부적절한 환기관리가 되지 못하여 발생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양환경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흡기와 관련된 예방프로그램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질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농장에서 늘 겪고 있는 설사질병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 또한 농장주의 설사 질병 근절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이제는 인간의 질병진단이 최첨단화 되어 어떤 질병에 언제쯤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의 진단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바, 가축의 질병진단에 있어서도 최근 진단기법이 첨단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평면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에 정부와 생산자단체 및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대처해야 될 것이며, 또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설사 질병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진단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최근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가백신도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이 같은 자가백신에 의한 설사예방은 수시로 농장의 발생 원인균을 확인하여야만 효과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양돈을 위한 검사기관 활용

현재 전국에는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16개 가축위생시험소, 10개 수의과대학 및 7개 민간연구소가 병성감정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나, 농장에서의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축주의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선 자가치료 후 의외형태로 이용하고 있어 조기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른 약품비 등의 손실액이 증가되는 점이 있으며,

둘째,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의 의뢰에 대한 신속한 결과조치가 미흡하여 농장에서는 질병상황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이다.

셋째, 가축전염병으로 진단될시 행정기관의 제재조치가 따르게 되어 농가에서 이들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기피하는 점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주와 검사기관이 서로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길 밖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며, 농장에서는 질병발생 후 이들 검사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예를 들어 가축혈청검사와 같은 의뢰검사는 농장에서 예방접종 전·후의 면역항체 정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농장에서 예방접종을 잘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 과학적인 양돈업을 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질병 발생시 농장과 검사기관간에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면 가축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질병의 최신 진단기법 활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이제 인간의 질병진단이 최첨단화 되어 어떤 질병에 언제쯤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을 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의 진단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바, 가축의 질병진단에 있어서도 최근 진단기법이 첨단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에 정부와 생산자단체 및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대처해야 될 것이며, 또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양돈단지를 포함한 지역체 구성

현행 양돈단지의 개념은 한 곳에 모여 사양기술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에서 보는 것처럼, 일개 개인농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발생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방역체계 위주의 양돈산업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양돈단지를 포함한 마을단위 개개의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체를 구성하여 사양과 질병에 대한 방역프로그램을 일치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축사설계의 질병예방 부분 고려

현행 대규모 양돈장을 비롯한 소규모 양돈장에 이르기까지 사육규모 확장 위주의 설계를 우선하다 보니, 질병차단과 예방 및 검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기존의 축사설계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축사설계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알맞는 질병예방 부분이 고려된 다양한 표준축사설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축사 신축을 위한 자금 지원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면, 위생적인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친환경 양돈산업 추구

끝으로 이제는 양돈산업이 양적 생산 위주 형태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양돈업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유전조작기술의 발달과 성장호르몬과 같은 신물질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최근 Codex위원회와 각 국가들에서 유기축산물 시안을 마련하는 등 과거 인위적인 형태의 사양관리 체계에서 가능한한 자연친화적인 형태를 추구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돈산업도 이 같은 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양관리의 방역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돈**